

4 아브라함과 이신칭의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할례와, 이신칭의(以信稱義),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변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원래 사람들에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복음과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어리석다'라는 말은 '너희는 복음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세계에서 할례란 율법의 거의 전부를 포괄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역시, 율법, 즉 할례라는 개념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좁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그 자체이고, 또 세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 모두는 과거에 대한 전통, 굳어진 관념, 살아온 관성, 영적인 습관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례와 율법에 천착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수 천년 동안 젖어 있던 그들은 율법과 선민 사상이라는 옷을 벗고, 다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율법과 선민의식에 대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선민으로서의 전통성이 앞으로 올 신령한 이스라엘의 예표일 뿐이었다는 것을

5 어리석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습 속에서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옷을 벗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이해해 나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고 옛 관습의 옷을 입은 채, 스스로의 의에 갇혀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 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의'를 이룰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성경이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천년전에 그리스도가 일을 이루셨고, 지금 오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바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임을 생각하지 못한채 옛 가치관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갈 3:1)

[최진영 목사]

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강해(8)

Galatians 3:1-9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8월 24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1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 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경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경을 받았습니까" (갈3:1-2, 새번역)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 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구하고 율법주의에 미혹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 앞에 선하다는 말은, 아주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재적이고, 눈앞에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나타난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가 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께 거짓 복음으로 미혹케 했습니까?"

"더구나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은 말로써 싶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은것으로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가 아닙니까?" (살전 1:5)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엇에 미혹되었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계속 지적했듯이 바로 '율법주의' 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온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경으로 시작하였다

2 율법주의의 상징 - '할례'

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나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갈 3:3-5)

바울은 갈라디아서 뿐 아니라, 로마서 및 다른 서신들에서도 율법주의를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그리고 잘 알수 있듯이, 그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은 바로 '할례'입니다.

바울은 평생이 이 '할례'라는 예식을 가지고 유대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할례는 바울의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었고, 할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에 미혹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습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창 17:10-11)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몸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 당한 갈라디아

3 마음의 '할례'

사람들, 그들이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 또 다시 육체로 끝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육체'란 '할례'의 다른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또 다시 육체의 포피를 잘라내는 일로 끝을 맺을 것이냐'는 바울의 냉소적인 말입니다.

바울은 할례주의자들과 끈질길 정도로 싸웁니다. 할례당 사람들을 개에 비유하면서 까지 극도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빌 3:2)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 곳곳에 할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갓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경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롬 2:28-29)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제 할례는 오직 마음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육의 할례는 허례허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으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 3:6-9)